

문화로서의 현대 기술과 교회¹⁾

손화철*

논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현대기술을 문화로서 파악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교회가 적극적으로 현대기술의 문화적 도전에 대처해야 함을 주장한다. I절에서는 기술이 어떤 종류의 문화인지, 그 중에서도 현대기술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 문화인지 살펴보고, 문화로서의 기술에 대해서도 문화전략이 필요함을 논한다. II절에서는 문화로서의 현대기술이 교회에 던지는 도전들을 구체적인 예들을 가지고 살펴본다. 기술철학자들의 이론을 빌어 현대기술이 기적을 거부하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며, 인간을 대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III절에서는 미국의 아미쉬(Amish) 공동체의 기술 수용에 대한 입장을 소개하고, 그들이 위에서 제기한 현대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아본다. 결론에서는 기술의 개발 뿐 아니라 기술의 선택적 사용 또한 하나의 문화적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미 주어져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핵심 주제어: 현대기술, 문화, 문화로서의 기술, 교회, 문화전략, 아미쉬 공동체

1) 본 논문의 초고를 읽고 귀한 논평과 조언을 해 주신 부산대학교 김유신 교수님과 한국기독교철학회 회원들,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균관대 강사

- I. 들어가며
- II. 현대기술과 문화전략
- III. 교회를 향한 현대기술의 도래
- IV. 아미쉬 공동체의 교훈
- V. 나가며

I. 들어가며

교회는 현대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하는가? 기술이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은 별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Monsma, 2000: 5) 그런 고찰의 필요도 크게 느끼지 못한다. 한국교회가 놀라운 속도로 현대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그 증거라 하겠다.²⁾

이는 교회가 문화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시 한국의 예를 들자면,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세속 문화에 대한 매우 강력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주초문제에서 시작하여 남녀관계, 복장, 출판물, 영상물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고, 교회 안에서 기타나 드럼을 사용하는 것도 오랫동안 금지되었다(cf. 신국원, 2002: 9-11). 최근에도 기독교적 입장에 입각한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강영안.

2)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부터 교회에 전도사를 모실 때 교회버스 운용을 위해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선호했다. 또 네온사인, 전자 오르간, 전화, 마이크, 녹음기, 영사기, 조명기기, OHP, 컴퓨터, 프로젝터 등 세대별로 활용 가능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널리 사용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이 카메라, 컴퓨터, 프로젝터를 활용하여 교인들이 성경 찬송 없이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짐작컨대, 대다수의 교회들이 첨단 기술을 이처럼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세계에서 그 예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1998; 신국원, 2004).³⁾

이런 모습을 요약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회는 인터넷,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컴퓨터, 텔레비전, 휴대전화의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자동차나 세탁기 같은 기능적 기술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과 사회를 조작의 대상으로 하는 사회기술, 즉 마케팅이나 광고 등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수용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이론적 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각종 연구나 교과서적인 저술들에서도 기술에 대한 언급은 놀라울 정도로 적다. 이러한 태도는 기술과 문화에 대한 암묵적 이해, 즉 기술은 도구이고 문화는 도구 사용의 결과물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기인한다.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문화철학과 기술철학의 연구들은 이러한 견해에 이의를 제기한다. 우선 문화철학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개념에 대한 논의들은 기술도 문화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또 기술철학은 기술이 가치중립적 도구라는 통념을 부정하고, 현대기술과 전통적 기술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지적

3) 기술에 대한 연구나 기술과 관련된 기독교 운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94년 이래 "TV 안보기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www.cafe.daum.net/notvweek를 보라), '작은 차타기 운동'도 벌였다. 장병일(1968), 김철영(2003), 이영구(2005) 등 기술과 기독교에 대한 연구서들이 있고, 80년대와 90년대에는 네덜란드의 기독교 기술철학자인 엑버트 스쿨판(Schuurman, E)의 저작자들이, 최근에는 『책임 있는 과학기술』(Monnsma, 2000)이 번역,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개별기술의 폐해와 기독교적 대응을 분세 삼거나 기술주의를 비판하고, 보다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치중한다. 교계에서 기술과 연관되어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분야로 생명윤리와 환경윤리를 들 수 있으나, 이들의 경우 주요 쟁점이 기술이나 그 사용에 있다기보다는 다른 가치들에 대한 논란, 즉 배아의 지위나 생명의 정의, 그리고 성격적 환경관에 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 중 대표적인 것으로 『신앙과 학문』 1권 1호부터 1권 3호까지 연재된 김상득의 글들이 있다.

한다. 나아가, 기술이 단순히 자연을 조작, 변형하기 위한 물질적 도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방법론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을 종합하면, 교회가 현대기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절에서는 기술이 어떤 종류의 문화인지, 그 중에서도 현대기술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 문화인지 살펴보고, 문화로서의 기술에 대해서도 문화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II절에서는 문화로서의 현대기술이 교회에 던지는 도전들을 구체적인 예들을 가지고 살펴본다. 고전적 기술철학자들⁴⁾의 이론을 빌어 현대기술이 기적을 거부하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며, 인간을 대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III절에서는 미국의 아미쉬(Amish) 공동체의 기술 수용에 대한 입장을 소개하고, 그들이 위에서 제기한 현대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아본다. 결론에서는 기술의 개발 뿐 아니라 기술의 선택적 사용 또한 하나의 문화적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미 주어져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주장할 것이다.

4) 기술철학의 발전 과정을 서술하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로 '고전적 기술철학(classical philosophy of technology)'과 '경험으로의 전환(empirical turn)'을 대비시키기도 한다. 고전적 기술철학자로 흔히 구별되는 사람들은 마틴 하이데거(Heidegger, M), 루이스 머포드(Mumford, L), 잭 엘룰(Ellul, J), 허버트 마르쿠제(Marcuse, H), 한스 요나스(Jonas, H) 등으로, 이들은(i) 전통적 기술과 현대 기술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ii) 개별 기술이 아닌 기술 일반에 대한 철학적 작업을 시도하며(iii) 기술이 인간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1980년대부터 고전적 기술철학에 대한 반발로 '경험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학자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i) 개별기술에 대해 보다 큰 비중을 두고(ii) 기술사회에 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문제의 지적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 글에서는 고전적 기술철학자들만을 다룬다.

II. 현대기술과 문화전략

1. 기술은 어떤 성질을 가진 문화인가?

기술은 문화다. 기술과 문화를 매우 좁게 정의하지 않은 한, 이 명제에 반할 근거는 별로 없다. 선사시대를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나누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의 일차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도구는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문화를 인간 삶의 양식 전체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과 반대되는 것 혹은 인간이 가공한 자연 등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렇게 초보적인 문화 개념만 가지고도 모든 유형적 문화가 기술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의 논의는 기술이 문화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기술이 문화 중에서도 어떤 특징을 가지는 문화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왜 기술이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담론에서 빠지게 되는지도 밝혀질 수 있다.

여러 가지 문화 중에서 기술이 가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시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문화는 어떤 활동의 결과물을 지칭하고, 그 결과물을 산출하는 방법이나 생산자의 능력, 혹은 사용되는 도구는 기술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미술품과 창작활동, 혹은 건축물과 건축공사를 구분하여 미술품과 건축물만을 문화라고 일컫는다. 화가의 작업이나 건축공사, 그림을 그리는데 쓰는 붓이나 공사할 때 쓰는 포클레인을 문화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단지 어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문화 중에서도 기술이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 바 크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술이 문화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에 이차적인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둘째, 도구인 기술에 대해 문화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반면, 그 기술의 결과물에 대한 문화적 가치판단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정 기술을 '비효율적'이라 평가할 수는 있어도 '좋다'거나 '오염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⁵⁾ 나아가 비효율적이거나 '나쁜' 기술이 그렇게

평가되는 이유도 그 결과물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특징은, 기술은 문화로서 세계관을 반영하고 세상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영향력이 간접적으로만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잘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마셜 맥루한(McLuhan, M.)은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는 표현을 통해 그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 사회들은 의사소통의 내용보다 그 의사소통의 수단인 미디어의 본질에 더 큰 영향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McLuhan & Fiore 1967). 다시 말하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내용보다 그것을 전달하는 기구인 텔레비전 자체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라는 뜻이다. 이 메시지는 인간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⁶⁾ 글자를 사용하게 된 사회는 이전에 직접 접촉을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회가 된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편지를 손으로 써서 봉투에 넣어 보내던 시절의 사회와 자판을 두드려 이메일로 단 몇 초 만에 지구의 반대편으로 보내는 지금의 사회는 매우 다른 사회이다. 구전의 사회와 문자의 사회가 다르고, 교통수단이 없이 걸어 다니는 사회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회는 다르다. 그 차이는 말이나 문자로 전하는 내용이나 여행의 목적과 거리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단 자체에서 유래한다.

앞에서 교회가 다른 세속 문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기술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기술의 속성들에 기인한 바 크다.⁷⁾ 그렇다고 해서 문화로서의 기술이 가지는 중요성을 간과

5) 신국원은 문화오염이 환경오염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한다(2002: 24ff). 그러나 이 주장을 기술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6) 그래서 그의 유명한 책 제목은 『미디어는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가 아니고 『미디어는 마사지다(Medium is the MASSAGE)』이다. 미디어는 온 몸을 마사지하는 것과도 같이 인간 삶의 모든 부분을 건드린다(McLuhan & Fiore, 1967: 26).

7) 교회 안에서 기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몇 가지 대표적인 이슈들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과학기술'을 논하게 되면, 바로 창조론-진화론 논쟁이나 낙태, 인간복제의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반퍼슨(van Peursen, C. A.)은 문화를 정적이 아닌 동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문화의 역동적인 면을 강조하면, 문화로서의 기술이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결정하고 변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인간의 활동', '각 사람과 각 민족의 삶의 표현' 혹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개입'(van Peursen, 1994: 4, 21) 등 반퍼슨이 제시하는 문화의 정의(定義)는 미술품이나 건축물보다는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에 더 잘 들어맞는다. 나아가, 기술이 도구적 특성을 가진다고 해서 다른 문화가 가지는 특성들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기술은 다양하고, 경험과 전승의 축적이며, 사회성, 역사성, 역동성을 가진 세계관의 반영이다. 또 모든 문화가 그러하듯이 기술은 그 시대의 산물이면서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한다.⁸⁾

2. 문화로서의 현대기술

문화로서의 기술에 대해 논할 때, 우리는 전통적인 기술과 현대 기술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논의에서 기술을 통칭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핵발전소나 제트기 조종기술이 아니라 망치나 복공기술 같이 전형적이면서도 간단한 전통적 기술들이다. "기술이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망치와 비행기, 망치와 미사일을 동시에 예로 드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을

문제 등 기독교적 입장을 비교적 뚜렷하게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제들이 전면에 떠오르게 되고 여타의 문제들은 그대로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이 주제들이 과학기술과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술의 문제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특히 낙태나 인간복제의 문제는 현대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나, 결국 논의의 쟁점은 배아나 생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기술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 세계관 논의에서는 인간의 창조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창조적 활동에 속하는 기술 활동 자체에는 판단의 잣대를 잘 들이대지 않았다.⁸⁾ 가설도 가능하다.

8) 신국원은 이런 특징들을 문화의 속성이라 설명한다(2002: 84).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기술과 현대기술이 그 규모나 영향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현대기술을 따로 떼어 어떤 성격을 가진 문화인지 묻는 것도 의미가 있다. 위에서는 기술이라는 문화와 다른 문화가, 예컨대 건축기술과 건축물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문화라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예로 설명하자면, 여기서는 과거의 건축 기술과 현대의 건축 기술이 문화로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를 묻는 것이다.

지난 20세기 초반에 전개된 고전적 기술철학에서는 전통적 기술과 현대기술의 차이를 논의의 중심에 놓았다. 그들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의 기술들은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과거와 현재의 기술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엘룰이다(Ellul, 1964: 64-77).

(i) 전통적인 기술은 다른 상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 인간의 다른 활동들(예를 들어 종교적 활동)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었는데, 현대에는 기술의 발전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

(ii) 전통적인 기술 활동에서는 도구보다 장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장인들은 최소한의 도구로 최대한의 결과를 추구했으므로 도구의 발달은 매우 더디었다. 그러나 현대기술에서는 자동화를 통해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iii) 전통적인 기술은 당대의 문화적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지역의 기술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데 오랜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반해 현대기술은 전지구적으로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다.

(iv) 19세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특정한 도구나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 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모두가 사용하는 기술을 거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용납되었으나, 현대기술은 그것이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되었다.

엘룰은 이러한 현대기술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한다: 기

술선택의 자동성, 자기 확장성, 일원주의, 개별기술들의 필연적 결합, 보편성, 자율성(Ellul, 1964: 79-147).

이러한 현대기술의 특징들을 기술이 문화로서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관찰이 가능하다.

첫째, 현대 기술에서는 기술의 도구적 성질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기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명확해진다. 위에서 기술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문화라는 개념에 포함되면서도 이차적인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오늘날에는 기술발전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더 빠른 자동차, 더 많은 처리 용량을 가진 컴퓨터, 더 얇은 휴대전화 개발을 위한 노력은 그것들을 가져야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다. 최고속도로 달릴 도로가 없어도, 처리할 데이터가 없어도, 휴대전화가 몇 mm 얇아져서 생기는 혜택이 대단치 않아도 그런 성취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된다. 과거에는 도구적 의미를 가졌던 기술이 이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된 경우는 이외에도 많다. 사회학자 닐 포스트먼(Postman, N.)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이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ostman, 1999: 42-45).⁹⁾ 그에 따르면 작금의 기술 발전은 이런 물음들에 적절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기껏 기대할 수 있는 대답은 ‘속도’와 같은 것인데, 이런 대답은 “왜(자동차나 컴퓨터가) 더 빨라져야 하는가”라는 또 다른 물음을 불러일으킬 뿐이

9) 그 외에도 포스트먼은 다음 5개의 질문을 더 던진다: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 “그 해결책으로 피해를 받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면 그 중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 기술적 해결을 통해 부나 권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개인이나 집단은 누구인가?”, “새로운 기술 때문에 생기게 되는 언어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변화를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가?”(Postman, 1999: 45-57) 그는 이런 물음들을 붙이면 현대기술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인 입장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먼의 기술사회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는 Postman(1992)를 참고하라.

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위에서 언급한 교회의 기술에 대한 무관심은 그 근거가 희박해진다. 기술을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일 뿐 아니라 인간 행위의 환경을 이루어 그 행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위에서 기술도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지지만 동시에 인간의 활동과 사고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대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나 기술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엘룰이 지적한 것처럼 과거에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늦어 인간이 새로운 기술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현대 기술은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적응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발전의 속도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는 사실은 미디어도 메시지라는 맥루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현대 기술의 본질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들을 부품으로 드러나게 하는 ‘뉘달(Ge-stell)’이라고 한 하이데거의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Heidegger, 1993: 14-15; 52-53).¹⁰⁾

현대에는 기술의 생산이 극도로 전문화되어 기술의 사용자와 유리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술이라는 문화와 그 사용의 문화가 철저하게 분리되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기술이 가지는 영향력의 간접성이 더욱 극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기술철학자 알버트 보르그만(Borgmann, A.)은 이러한 분리가 인간다운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 기술의 특징은 장치의 패러다임(device paradigm)이 중심적인 것들과 중심적

10) 뉘달 역시 존재가 그 자신을 드러내는 탈 은폐(Entbergen)의 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는 신과 인간, 하늘과 땅을 한데 모으고 함께 드러나게 만들었던 과거의 기술들과는 거리가 멀다. 과거의 기술은 간추어져 있던 여러 존재자들 간의 관계들을 드러나게 만든다(poiesis).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강 양편의 강둑을 의미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고, 강 건너의 마을을 이웃으로 만든다. 제사장의 은좌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과 인간을 잇는 역할을 한다(Heidegger, 1993: 24-27; 34-35; 1977: 330-331).

인 행위들(focal things and practices)을 대치해 버린 것이다(Borgmann 1984: 41-43). 장치의 패러다임에서는 기계적 장치(machinery)가 그 효용(commodity)으로 분리되어 눈에 보이지 않게 됨으로서 삶의 맥락과도 분리되었다. 보르그만은 과거와 현재의 난방을 예로 든다. 옛날 벽난로에서 불을 피워 난방을 할 때 벽난로는 가족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가족 모두 불을 피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었으며, 벽난로는 가족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반면에 현대의 난방시스템은 벽 속에 숨어 그 시스템과 따뜻함이라는 효용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없고, 가족의 삶의 맥락과도 무관하다.¹¹⁾ 벽난로, 전통 요리법과 같은 것들은 삶의 여러 요소들을 한데로 모으는 효과(gathering effect)를 가지기 때문에 '중심적'이다.¹²⁾ 보르그만은 삶의 맥락과 동떨어진 채 효용만을 제공하는 현대 기술을 가지고는 이상적인 공동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술과 그 혜택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 결국은 삶의 맥락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인간고유의 의미와 가치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엘름이 주장한 기술의 자율성 개념은 문화로서의 현대기술이 이전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문화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동시에 문화가 인간 활동의 배경과 환경이 된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지만, 기술의 자율성 개념은 인간에 의해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거부하는 셈이다. 이 개념은 문화철학의 논의에서 사회결정론이나 소외이론 등에서 볼 수 있는 소위 탈 인간적 문화관과 비슷하다. 탈 인간적 문화관에서는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점점 자연으로부터 멀어져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는

11) 이 분석은 기술과 문화를 연결시켜 생각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한다.

12) 이에 따라 보르그만은 단순 반복적, 노동집약적 작업들은 기계에 의존하되, 창조적인 행위들은 인간이 직접 하도록 하는 이원적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술은, 인간의 창조성과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Borgmann, 1984: 237-242).

것이 아니라 문화가 인간을 창조하게 된다고 주장한다(손봉호, 1998: 44-47). 현대기술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극단적인 예이다.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쓰기 때문에 내가 휴대전화를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는 상황. 굳이 새 휴대전화를 살 필요가 없는데도 광고를 보고 나면 망설이는 소비자, 새 모델을 출시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발하는 회사, 휴대전화를 개발하면서 자신이 맡은 부분 이외의 다른 부속의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전문가, 휴대전화를 해외에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싸을 수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는 정치가 등. 이 모든 경우에서 사람의 능동적인 모습은 찾기 힘들다. 혹시 내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휴대전화라는 미디어의 메시지가 바로 '인간의 종말'은 아닐까? 그런 점에서 탈 인간적 문화관이 현대기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세기에 등장하여 20세기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기술은 문화인데, 그 중에서 현대기술은 문화의 개념 자체를 흔들고 있는 그런 종류의 문화인 것이다.

3. 현대기술과 문화전략

반퍼슨은 문화를 동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문화가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 즉 전략이 바로 문화라는 것이다. 이 말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문화는 말하자면 인간의 학습장이다. 인간은 문화를 접할 때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뿐만 아니라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던진다. 문화는 끊임없이 긴장 속에 존재한다. 인간은 자연을 사실적으로 파악한 뒤,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

것을 평가하고 정책과 전략 속에 흡수함으로써 자연적인 사실에 변화를 가한다(Van Peursen, 1994: 25).

문제는, 문화가 전략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늘 의식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반퍼슨은 문화가 전략임을 보임으로써 문화의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문화는 전략이지만, 동시에 전략이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문화와 윤리가 만나게 된다. 신국원(2002; 2004)은 이러한 생각을 대중문화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대응에 적용한다. 그에 따르면 먼저 대중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와 소통하고, 그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나아가 변혁해야 한다. 반퍼슨이 문화전략을 논하면서 현대 정보기술을 주로 언급했음을 생각할 때, 그의 문화이론을 한국 교회에서 적용한 첫 사례가 대중 문화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면이 없지 않다.¹³⁾

그렇다면, 기술에 대한 기독교적 문화전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 물음이 간단히 답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에 답하기 전에 먼저 문화로서의 현대기술이 교회에 던지는 도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교회를 향한 현대기술의 도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의 기술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기술이 문화로서 가지는 특징들은 과거의 기술이 가졌던 특징들과 다르다. 현대기술의 빠른 발달 속도 때문에 문화의 이중적 작용, 즉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인간을 만들어가기도 하는 그 과정에 불균형이 생겼다. 현대기술 역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제작자로서 인간의 역

13) 물론 이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화로서의 기술에 대한 논의를 비켜가게 되는 여러 제약들이 있다.

할은 축소되었다. 기술발전이 심화될수록 기술에 둘러싸여 조종되는 인간의 모습은 더욱 적나라하게 들어난다.

그렇다면 문화로서의 현대기술이 교회에게 제기하는 도전은 무엇인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술은 문화이고 문화는 그 시대의 세계관을 반영할 뿐 아니라 그것을 접하는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세속 문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단지 드러난 부분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메시지를 보고,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들을 고찰해야 한다. 현대기술 역시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발전을 추동하는 특정한 사고방식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들을 초래한다. 이 절에서는 기술철학자들이 제기한 현대기술의 특징들 중 세 가지에 대한 해석 및 분석을 통해, 교회가 왜 현대기술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들을 보다 압축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세 가지 예를 사용한다.

1. 기적의 배제

첫째, 최근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한 디지털 기기 회사의 기업 이미지 광고가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듯이, 현대 기술은 기적을 거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속도에 대한 집착.

시속 몇 km가 되어야 인간은 물 위를 달릴 수 있을까.

기적은 없다. 기술이 있을 뿐

Technology Spirit¹⁴⁾

이 광고는 기적을 거부하는 현대인들의 생각이 기술과 직접 맞닿아 있음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물 위를 걸음'이나 '기적'이라는 표현은 예

14) 신도리코 PR, 2005년 9월 방영.

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을 곧바로 연상시킨다. 기술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 기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 광고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상이다.¹⁵⁾ 다시 말해서, 현대기술은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발전하고 사용된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거니와 근대과학과 결합된 현대기술의 힘은 이러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만도 하다.¹⁶⁾ 엘룰은 창세기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성을 쌓은 것을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려는 시도로 본다 (Ellul, 1970). 이어서 철기로 각종 기계를 만든 라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멕은 자기가 저지른 살인을 자랑하며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뽐낸다(창4:23-24). 엘룰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시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죄악의 상징이라 주장한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 기술사회는 이러한 도시의 정신이 극에 달한 곳이라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언급한 기술의 자율성 개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대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이 되었다는 주장은 기술이 혼자 달리는 자동차나 생각할 수 있는 로봇처럼 자신의 갈 길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의 발전 방향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효율성의 원칙이 기술 발전을 주도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개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오히려 인간들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특정한 방향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은 그 방향

15) 이는 '기술주의'의 노골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Monsma, 2000: 92ff).

16)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대 기술은 존재의 진리를 추구하는 대신 존재자의 진리에만 집중해 온 서양 형이상학이 초래한 불가피한 최종 결과물이다. 중세에는 신이 만든 존재자들의 실서를 진리와 동일시하였고, 근세에 와서는 진리의 최종 담보자를 인간 주체로 모아 이성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다가, 거기서 다시 니체의 철학으로 이어졌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이성이 '권력에의 의지'로 소급되어 버리는 니체의 철학을 서양 형이상학의 최종점으로 해석했고, 현대 기술은 이 권력에의 의지가 물화된 것이라고 보았다(박찬국, 2002: 249, 253).

을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Elul, 1964: 133-134). 더구나 정치적 경제적 고려들조차 기술 시스템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의 운용과 관련하여 개인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효율성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 기술사회에서 효율성의 법칙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가치가 되어 버렸다. 나아가서, 엘룰은 효율성의 법칙이 기술적 문제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원칙으로 되어 버렸다고 주장한다(Elul, 1964: 133-146).¹⁷⁾

여기서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효율성의 법칙이 언제나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전제한다는 점이다. 효율성의 법칙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술사회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문제로 인식된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사회에서 기적이 거부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엘룰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술 자체가 신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Elul, 1964: 142-144). 그에 따르면 인간은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의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따라서 기술사회에서는 신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신의 자리를 대신한다. 기술을 인간의 도구로 본다면 기술은 기적을 불필요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자율적이 되었다고 본다면 기술이 기적을 일으키는 셈이다.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 앉아 있는 것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나, 중병에 걸려 병원에 가는 것이 기적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중요한 일부가 되는 현대 사회의 지향점이다.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는 교회와 거부하는 (혹은 기술의 기적만을 인정하는) 현대사회 사이에는 본질적인 긴장이 있는데, 교회가 이를 의

17) 기술의 자율성 개념에 대해서는 강성화(2001): Winner(1995): Mitcham (2005) 등을 참고하라.

식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대기술이 기적을 거부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주장으로부터 현대기술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을 바로 이끌어내는 것은 곤란하다. 엘렐이 말하듯, 도시는 언제나 있어왔고, 교회는 도시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늘 도시와 함께(혹은 도시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근대의 인본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 사상이 체화된 현대기술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데 있다. 현대기술의 사용을 중단하지는 않더라도, 교회는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 어떤 맥락에서 개발되고 사용되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현대기술의 신물들에 너무 의존하거나 효율성의 법칙에 매달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기술사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2. 공동체의 파괴

현대기술의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 통신회사의 기업 이미지 광고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묘한 아이러니를 확인할 수 있다.

주소록을 없애주세요 / 사랑하는 친구의 번호쯤은 잊 수 있도록
 카메라를 없애주세요 /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을 두 눈에 담도록
 문자기능을 없애주세요 /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긴 연애편지를 쓰도록
 기술은 언제나 사람에게 지고 맙니다.¹⁸⁾

이 광고는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세월동안 휴대전화가 급속하게 바뀌어버린 문화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고의 주체가 통신회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술은 언제나 사람에게 진다”는 말이 사실이 아님은 광

18) SK 텔레콤 PR(2005년 12월 방영). www.sktelecom.com/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이 안다. 적어도 한국의 휴대전화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이 기술에게 졌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휴대전화가 없이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래도 사용을 거부하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휴대전화는 기술이 단순히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적 성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을 통해 삶의 방식을 바꾸게 만드는 무형의 힘을 가졌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더 이상 연인들은 긴 연애편지를 쓰지 않고, 친구와 약속을 할 때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간단한 조작으로 통화시도가 가능하고, 그는 언제나 나에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 새로운 예절과 질서, 화법이 급속히 퍼져간다.

위의 광고는 이 모든 변화들이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여전히 친구와 소통하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랑의 언어를 전하지만, 휴대전화의 편리함은 이 모든 것을 너무 간단하고 피상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설 새 없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을 두 눈에 담을' 여유는 없어지고, 대면접촉의 깊이는 사라진다. 이에 대해서는 제 4절에서 아미쉬 공동체를 소개하며 좀 더 생 각해 보도록 한다.

3. 인간의 대상화

셋째, 현대 기술은 인간을 대상화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인간복제 등 인간이 신체적으로 기술적인 조작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로 마케팅이나 광고 및 미디어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 인간에 대한 의식적인 조작이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인간을 대상으로 한 기술들의 발전은 현대 기술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만 한 점은, 인간관계조차 문제와 문제해결이라는 기술적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좋은 상사가 되는 법,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기술, 부부관계를 향상시키는 법 등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이러한 현상의 좋은 예들이라 하겠다. 엘룰은 이들 모두를 포괄하여 '인간기술'(human technology)¹⁹⁾라고 부른다(Ellul, 1964: 319ff; cf. Ellul, 1965).

인간기술은 현대사회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회사들은 자기 회사의 사원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기를 원하고, 그에 맞추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광고회사들은 광고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석하여 30초 안에 그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 애쓴다. 이 노력에는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들이 추가되어 매우 정교한 기술이 된다. 그 메커니즘은 미묘하고도 복잡해서, 직원 교육을 받고 광고를 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조종(혹은 세뇌)되고 있음을 알고, 조종하는 사람들은 조종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도 안다. 위의 휴대전화 사용 절제 광고는 기업광고 인기도 1위에 올랐다.²⁰⁾ 기업 광고에는 성공한 셈인데, 과연 사

19) 인간기술이 다른 기술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인간기술은 현대에 들어와서 두드러지게 발전한 분야로, 광고 기술과 같은 것은 기술로서보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기술도 문화라는 본 논문의 취지에서 볼 때, 인간기술에 대한 이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이 문화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기술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자연을 조작, 변형하는 물질적 기술을 준거로 하지만, 이는 현대기술에서는 기술적 조작의 대상이 인간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반영하지 못한다. 인간기술 역시 위에서 언급한 현대기술의 여러 특징들을 공유한다. 포스트먼은 정영을 인간을 다루는 과학기술로 다룬 프레데릭 테일러(Taylor, F)의 1911년 저작 『과학적 경영원리』를 테크노폴리(기술이 모든 판단의 준거가 되고 사회변화의 원인이 되는 사회)의 시작으로 보는데(Postman, 1992: 73). 이는 현대에 와서 기술의 외연이 물질적 기술에서 사회적 기술, 혹은 인간 기술로 더욱 넓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글에서 주로 물질적 기술에 초점을 맞추다가 쉘 교회의 예에서만 갑자기 인간기술로 넘어간 것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으나 현대기술에 의한 인간의 대상화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 TV광고 인기순위를 정하고 동영상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www.tvcf.co.kr)에서 위에 언급한 SK telecom의 PR 광고는 소위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명예의 전당

사람들은 그 광고에 감동하여 휴대전화를 꺼 버렸을까?

인간 기술은 교회에서도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큰 반향을 얻고 있는 셀 교회 목회의 대표적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셀 교회 지침서』(Neighbour: 2000)를 살펴보자.²¹⁾ <표 1>²²⁾은 기존의 교회를 셀 교회로 바꾸기로 했을 때 기존 교인들의 성향별 구성 비율이다.²³⁾ 저자 네이버(Neighbour, Jr., R. W.)는 기존 교회의 교인들을 셀 교회 모델을 수용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혁신가, 조기 채택자, 조기 다수인, 후기 다수인, 저항자 등으로 구별하고, 각각의 집단이 가지는 특성과, 각 집단의 비율, 그리고 그들이 변화를 수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등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셀 교회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사람들과 부정적인 사람들을 구별한 후 몇 단계를 거쳐 전환이 이루어진다.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와 교인들의 거부반응 혹은 장애물들이 열거하면서(<표 2>), 네이버는 리더가 '셀그룹 교회의 다음 단계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세를 잃기 전에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0: 508). <표 3>은 이 책 20장의 소제목들을 나열한 것으로, 셀 교회를 확장하거나 시작할 때 밟아야 할 단계들이다. 맨 앞에 기도하라는 말만 빼면, 여느 경영서적에서 시장개척을 하는 방법을 나열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 지침서가 목표하는 바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전도와 교회 부흥이다. 그러나 교회가 능동적인 소모임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에 오르려면 3주 연속 인기도 1위를 차지하거나 총 5주 동안 1위를 해야 한다.

21) 이 책에서 소개되는 방법론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정작 한국에 전형적인 셀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교회들이 기존의 시스템에 셀 교회 방법론을 일부 차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이 있으며 이롭도 목장, 가정 교회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

22) 표 1~3은 논문 뒤의 부록을 참조하라.

23) 사실 같은 책의 1990년 초판에서 네이버는 기존교회가 셀 교회로 전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가 2000년 재판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표 1>에서 비율의 구체성에 주목하라.

몸 된 교회를 세우려 노력하는 것과, 성공한 셀 교회의 분석을 통해 노하우(knowhow)라는 말로 일반화된 전략을 소개하는 것은 다르다.²⁴⁾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후자는 문제수립과 가장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하는 기술의 패러다임을 따른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교인이나 피전도인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결단을 내리고 교회를 섬기는 주체로서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지는 객체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지침서의 여러 장에서 혁신의 주체를 리더 혹은 목회자로 한정하고 교인들은 목회자의 방법론과 리더십에 따라 바뀌는 객체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목회자는 목자요, 교인들은 양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식의 가부장적인 인식과도 미묘하게 구분된다. 교인들은 순종의 당위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양이기 보다는 특정한 방식으로 길들여져야 하는 야생마나 예술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나무토막, 또는 제거해야 할 망가진 부품에 비할 수 있다.²⁵⁾ 예를 들어 리더의 목표는 교인들의 가치관, 즉 기존의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생각이나 자신이 사역자가 아니라는 사고방식 등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²⁶⁾ <표 3>에서 보듯 교인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24) 이 책은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한 셀 교회들을 연구, 발전시킨 모 든 노하우가 집약된 셀 교회를 위한 독보적인 지침서'로 소개된다.(Neighbour, 2000: 뒷표지)

25) 위에서 언급한 '저항자들에 대해서 네이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들 저항인들 일 때 교회가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이러한 추세는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저항인 그룹이 지배권을 넘겨주려면 여러 번 장례식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정치권이나 교회에서나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해임하는 일은 어렵다. 다음 번 칸에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가?(Neighbour, 2000: 494). 다행히도 이름을 적은 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다. 그러나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신 예수님에 대한 언급 역시 이 책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26) 더 간단한 조연도 주어진다. "가치관을 변화시키는데 탁월한 12주 성경공부 교재로 『신병훈련소』(Boot camp)와 영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분류, 분석되고 각각에 적합한 방법론들이 적용된다.

제품의 생산자가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목회자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비판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방법이 점차 정교화, 정형화되면서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일정한 방법론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경계할 만한 일이다.

IV. 아미쉬 공동체의 교훈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즉 문화로서의 기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예로 미국의 재세례파 공동체인 아미쉬(Amish)공동체를 들 수 있다.²⁷⁾ 1800년 대 말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아미쉬 공동체는 세속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신앙공동체를 순결하게 유지하려 애써왔다. 이들은 가족과 교회의 공동체적 중요성을 최우선에 두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 노력한다. 현대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서 자동차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정확한 이해에 바탕 한 경우는 별로 없다.²⁸⁾ 이 절에서는 아미쉬 공동체의 기술 수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논의하도록 한다(Kraybill, 2001: 188-237).

Celling the Church가 있다. 이 성경공부를 하다보면 교인들의 가치가 빠르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Neighbour, 2000: 501). 번역자는 왜 ‘Celling the Church’라는 책이름을 번역하지 않았을까? ‘Celling’이 바로 ‘Selling’을 연상시킨다는 사실을 번역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셀 교회 지침서들에서 셀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례를 강조하는 것은 외관위의 상품판매실적 향상 사례처럼 보인다.

27) 아미쉬 공동체에 대해서는 여기서 주로 인용한 Kraybill(2001) 이외에도 Hostetler(1963), Igou(1999/2002), Egens(2000/2001)을 참고하라.

28) 대표적인 오해로(i) 전기나 자동차 사용을 전혀 거부한다.(ii) 세금을 내지 않는다.(iii)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등등이 있다. 이들 모두 사실이 아니다.

아미쉬 공동체의 현대기술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선별적인 기술도입을 시도해 왔다. 이들은 기술의 사용 자체를 죄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술수용에서 중요한 관점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세속과 지속적인 연관성을 수립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과 소유의 분리이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전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세상과의 지속적이 연관성을 피하는 상징적인 노력이다. 택시나 버스는 이용하지만 소유하지 않는 것도 특이하다(Kraybill, 2001: 213-222). 사용은 하되 그 사용에 얽매이거나 지나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화의 경우는 공동체에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화의 사용 여부는 1900년 대 초부터 논란이 일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는 집 안에는 전화를 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Kraybill, 2001: 190-197).²⁹⁾ 이는 외부 세계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고, 공동체 안에서의 대면 접촉을 저해하지 않으며, 가족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원칙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아미쉬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 별로 다른 세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체로 몇 집이 공동으로 전화를 소유하고 위급한 상황이나 사업관계로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었으며, 최근에는 헛간에 개인이 소유한 전화를 설치하기도 한다.

아미쉬 공동체의 기술사용에 대한 제약은, 기술의 사용이 비성경적이라거나 이단적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하고 세속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기술을 일단 사용하게 되면 언젠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

29) 이런 결론이 나기까지 25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아미쉬 공동체의 정책결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기술 도입의 경우 처음에는 각자에게 판단이 맡겨지지만 일단 누군가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면 주교들이 모여 토론을 거쳐 자신들의 공동체에 일괄적인 원칙을 만든다. 예를 들어 누군가 트랙터를 사서 쓰다가 문제가 제기되면 트랙터 사용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원로들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다.

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용 자체를 자제한다.³⁰⁾ 따라서 이들의 규칙들은 일정한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고 때로는 전화의 경우처럼 타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용과 소유의 분리는 기술을 필요에 의해 사용하되 기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아미쉬 공동체가 일면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최첨단 기술시대인 21세기에 여전히 건재한 것은 이러한 유연성 때문이다.³¹⁾ 물론 이들의 입장이 때로는 위선적이거나 비일관적, 이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³²⁾ 기술이 공동체의 결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함과 기술을 사용하되 그것에 의해 지배받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배울 점이 많다. 개인의 차원 뿐 아니라 교회 안으로 특정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무비판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한국교회에는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30) “교회의 전기사용 제한 결정에 대해 한 멤버는 말했다. ‘전기는 세속화로 이어질 거예요. 전기를 쓰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온갖 필요 없는 것들을 쓰게 되지요. 디젤 엔진을 사용하면 우리[사람]한테 [물건들에 대한] 통제권이 더 많아져요. 만약 전기선을 연결하면, 아마 모든 전기제품을 다 쓰고 싶어 하게 될 거예요. 아미쉬도 사람이라구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반대하는 건 전기가 아니라 전기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들이지요. 온갖 편리한 제품들, 텔레비전, 컴퓨터 등등 말이예요. 우리가 전깃불을 설치하면, 그 다음엔 어디서 멈추지요? 그 때부터 변화의 바퀴가 마구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Kraybill, 2001: 201-필자 번역)

31) 높은 출산율과 낮은 이탈율 때문에 아미쉬 공동체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Kraybill, 2001: 16, 335).

32) 아미쉬 공동체들 사이에도 다른 원칙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표 4를 보라. 1730년대부터 미국 이주를 시작한 이래, 아미쉬 공동체는 세 번에 걸친 교파 분열을 경험했는데(1877년, 1910년, 1966년), 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특정 기술들의 사용 여부가 주요원인이었다(Kraybill, 2001:25:188-190: 232-233).

V. 나가며: 기술사용 자제도 문화의 전략일 수 있는가?

기술이 문화라면, 교회에게 기술은 변혁의 대상이다. 따라서 교회는 기술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변혁할 것인가? 아마쉬 공동체의 해법은 진정한 의미의 변혁이라 할 수 없는 지도 모른다. 그들은 현대기술을 자신들을 침범하는 세속의 힘으로 보고 수동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임 있는 기술, 기독교적 기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Monsma, 2000). 그러나 현대기술과 다른 문화(예를 들어 대중문화)를 변혁하는 전략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단기적인 전략과 장기적인 전략의 구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중문화가 불경건하다 하여 피하는 것은 적절한 문화전략이 아니다. 교인도 문화 향유의 욕구를 가진 시민으로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교회는 대중문화의 적절한 이해에 기반을 둔 문화비평과 비판적 시민운동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기술의 경우에는 일상의 맥락과 분리되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반성의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고, 그 도구적 특성으로 인해 그 적절성을 즉각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책임 있는 기술,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술의 개발이 때로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막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보다 책임 있는 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기술의 선택과 사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기술의 수용에 완급을 조절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문화의 전략일 수 있다. 아마쉬 공동체의 독특한 '타협'의 노력은 그들의 수동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좋은 본보기가 된다.³³⁾

33)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생각할 수 있을까. 2004년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성인 콘텐츠 시장의 매출은 약 6백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들의 관련수입까지 합치면 관련 매출은 2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전 세계 성인 콘텐츠

참고문헌

- 강성화 (2001), "자크 엘릴의 '자율적' 기술 개념", 『철학연구』, 54, 273-293.
- 강영안 외 (1998),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기윤실 문화전략위원회,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김철영 (2003), 『21세기 기술 사회와 기독교적 가치』,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 박찬국 (2002), 『하이테크와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손봉호 (1998), "철학의 문화관", 김광익 외, 『문화의 다학문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신국원 (2002),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문화전쟁 시대의 기독교 문화 전략』, 서울: IVP.
- _____ (2004),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서울: IVP.
- _____ (2005),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 이영규 (2005), 『컴퓨터 기술과 기독교 윤리』, 서울: 한들출판사.

즈 시장의 20%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 시장의 규모가 해마다 커질 뿐 아니라 동영상이 보급마저 가능해져서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5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한다('포르노는 뉴미디어의 사생아?', 『시사저널』, 815호(2005년 5월): '모바일 성인콘텐츠 시장 2010년 50억 달러', 『인터넷 한겨레』 (2005년 3월 19일)). 이런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성인인증 등의 차단 방법에만 집중할 뿐 휴대전화의 디자인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루어진 바 없다. 만약, 휴대전화 화면 액정의 크기가 몇 년 전처럼 작고, 컬러화면이 아니었다면 휴대전화에서의 성인 콘텐츠 보급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휴대전화의 진화를 기독교인이 막을 방법은 없었겠지만, 문제는 커다란 컬러화면이 달리 휴대전화 밖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휴대전화의 여러 기능들을 생각해 보면 컬러화면이 필수적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몇 년 전 한국 교회가 큰 컬러화면의 휴대전화 사용을 거부하고 작은 흑백화면을 고집했다면 상황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우선 흑백 휴대전화의 생산이 중단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나름대로의 질적 향상도 있었을 것이다. 흑백 휴대전화 구입이 가능하고 국민의 25%가 지금도 이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의식 있는 비신자들도 성인인증기술의 개발을 촉구하는 운동 대신 흑백휴대전화 사용하기 운동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컬러화면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포르노 비디오테이프를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는 않았을까. 황당할지 모르나, 즐거운 상상이다.

- 장병일(1968), 『기술문명과 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Borgmann, Albert (1984), *Technology and the Character of Contemporary Life*.
- Egens, Linda (2000), *Visits with the Amish*, 조연숙 역(2001), 『하미쉬: 느리게,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 서울: 다자리.
- Ellul, Jacques (1954), *La technique ou l'enjeu du siècle*, trans, by J. Wilkinson(1964), *The Technological Society*, New York: Vintage.
- _____ (1962), *Propagandes*, trans, by Konrad Kellen & Jean Lerner(1965), *Propaganda: The Formation of Men's Attitudes*, New York: Vintage.
- _____ (1970), *The Meaning of the City*, trans, by Dennis Pardee, Grand Rapids: Eerdmans.
- Heidegger, Martin (1951), "Bauen, Wohnen und Denken," "Building Dwelling Thinking," ed. by David Farrell Krell(1977), *Martin Heidegger: Basic Writings*, New York: Haper & Row, 319-339.
- _____ (1962), *Die Technik und die Kehre*, 이기상 역(1993), 『기술과 전환』, 서울: 서광사.
- Hostetler, John A. (1963), *Amish Society*, Baltimore: Johns Hopkins U. P.
- Igou, Brad ed. (1999) *The Amish in Their Own Words*, 생태마을 연구회 역 (2002), 『하미쉬 공동체』, 서울: 들녘.
- Kraybill, Donald B. (2001), *The Riddle of Amish Culture*, Revised Edi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 P.
- McLuhan, Marshall and Fiore, Quentin (1967), *The Medium is the MESSAGE: An Inventory of Effects*, Corte Madera: Gingko Press.
- Mitcham, Carl ed. (2005), *Encyclopedia of Science, Technology and Ethics*, New York: Macmillan.
- Monsma, Stepen V. et al. (1986), *Responsible Technology*, 양성만 외 역 (2000), 『책임있는 과학기술』, 서울: C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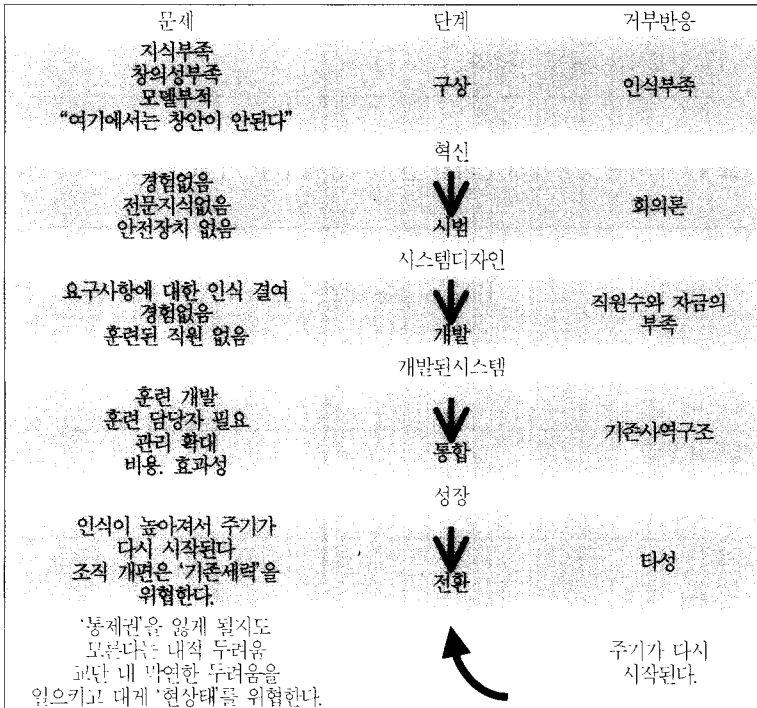
- Neighbour, Ralph W. Jr. (2000), *Where Do We Go from Here?: A Guidebook for the Cell Group Church*, 정지우 역(2000), 『셀 교회: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서울: NCD.
- Postman, Neil (1992), *Technopoly: The Surrender of Culture to Technology*, 김 균 역(2005), 『테크노폴리아』, 서울: 궁리.
- _____ (1999), *Building a Bridge to the 18th Century: How the past can Improve Our Future*, New York: Vintage.
- Van Peursen, Cornelis A.(1987), *Cultuur in stroomversnelling*, 강영안 역 (1994), 『답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서울: 서광사.
- Winner, Langdon(1995), "The Enduring Dilemmas of Autonomous Technique," *Bulletin of Science, Technology & Society*, 15(2), 62-72.

부 록

<표 1> 교회에 있는 다섯가지 유형의 사람들(Neighbour, 2000: 491-495)³⁴⁾

유형	비율
혁신가(Innovators)	2.5%
조기채택자(Early Adopters)	13.5%
조기다수자(Early Majority)	34%
후기다수자(Late Majority)	34%
저항자(Laggards)	16%

<표 2> 셀 교회로의 변화의 단계(Neighbour, 2000: 509)



34) 책에는 도표로 되어 있음.

〈표 3〉 셸 확장 전략 개발하기(Neighbour 2000: 제20장의 목차)

1. 활동을 위해 기도의 기초를 세우라
2. 자료를 확보하라
3. 지역 전략 지도를 만들라
4. 도시를 주택 단위로 나누라
5. 인구 피라미드를 만들라
6. 보고서용 서식을 만들라
7. 주택지구 분석표를 만들라
8. 주택지구를 영역별로 분류하라.
9.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
10. 전략적인 문건을 만들라
11. 핵심 침투 지역을 선택하라
12. 바둑판 셸 개척 양식을 사용하라
13. 실제적인 전략을 세우라

〈표 4〉 아미쉬 공동체의 전화와 전기 사용에 관한 지침(Kraybill 2001: 208)

금지		
컴퓨터	110볼트 공용 전기	집 안에 두는 전화
전기불	라디오	비디오
110 볼트 전기제품	녹음기	
명확치 않음		
휴대전화	팩스	워드 프로세서
허용		
삐삐	발전기	변압기
계산기	용접기	복사기
전자저울	집 밖에 두는 전화기	12볼트 모터
전기계산대	손전등	12볼트 독서등
전기오타리	보청기	Voice Mail

Abstract

Modern Technology as a Culture and the Church

Wha Chul S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hurch should recognize modern technology as an important element of human culture and find an appropriate response to it. The first chapter concerns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technology as a culture and emphasizes the need for the Christian church to elaborate a cultural strategy. The second chapter is about the challenge that modern technology poses against the church. It is argued that modern technology tends to refuse miracles, destroy communities, and objectify humans, which deserves more attention. In the third chapter, the Amish community is introduced, especially how they decide to use or not to use a certain technology. They have developed an interesting way of life specifically in order not to subject themselves to modern technology.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Christian strategy for technology as a culture c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how to use it selectively and wisely, as well as how to develop it further.

Key Words: Modern Technology, Culture, Technology

* Lecturer, Sungkyunkwan University

**as a Culture, the Church, Cultural Strategy,
the Amish Community**